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평화수호의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자위의 군력을 역적으로 다져주시어

공화국에서는 새해 정초부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국방과학부에서도 새로운 주체무기 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있다. 년초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주체무기개발시험들의 연속성공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다 이바와 같이 공화국이 시험발사한 주체무기들은 몇개 나라밖에 소유하지 못한 매우 위력한 무기들이다. 공화국은 이 주체무기들을 짧은 기간에 개발완성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국방과학, 국방공업의 발전정도, 창조능력을 잘 엿볼수 있게 한다. 하다면 국가방위력강화에서의 혁신적이고 기적적인 성과가 연속 이룩되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강철의 담력과 의지로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다. 적대세력의 침략위험을 종식시키자면 나라의 군력을 하루빨리 첨단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을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포연서린 전투훈련장들을 찾고찾으며 신묘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안겨주시며 펄펄 나는 싸움꾼들을 키워주시고 정들의 총구가 도사린 최전연초소들을 찾으시어는 군인들이 지켜선 초소의 뒤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조국애를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화신길, 전선길에서 공화국의 군대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애에 대항할수 있는 최정예강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게 되었다. 공화국이 틀어쥔 자위의 강력한 보검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과 이 땅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헤치려는 사생결단의 의지와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조선의 절대적인 힘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으신 국방력강화의 길은 얼마나 험난하고 간고한 길이었는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애에 처부실수 있는 전략무기개발사업을 구상하시고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 착상하고 연구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었으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피야벌이 내려쬐이는 한여름에도, 비바람부는 곳엔날에도 위험천만한 화신길을 걷고걸으며 주체무기들의 개발완성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그이의 불면불휴의 헌신이 있어

《약소국》이 강대국으로

경쟁을 토로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갈 불라는 맹세로 심장을 뚫고있는 것이다. 세계인론들도 《김정은각하의 령도 밑에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보다 훌륭한 미래에로 비약할것이다》,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있는 국가정치가 김정은령도자를 모시어 조선은 반드시 부강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날것이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정치가, 창조적능력이 높고 실천력이 강한 지도자를 모시어 조선은 날로 강해질것이다》고 격찬하고있다. 위인은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고 하였다.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공인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공화국의 자위적역력은 최상의 경지에 오를수 있었다. 바로 이것을 지난해에 진행된 국방발전전략회의 《자위-2021》이 여실히 증명하였으며 올해 련이어 진행된 주체무기들의 시험결과가 다시금 말해주고있다. 세계인론들도 《일단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그 개발을 (진화적), (연속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개발로부터 시제품제작 및 시험발사에 이르기까지 (초고속개발전략) 구사》, 《다양한 실험유도무기체계들을 개발시작부터 시제품시험발사까지 최대 3년, 최종시험평가까지는 최대 4년이라는 놀라운 미사일개발속도를 보여주는 조선》이라고 평하고있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녕,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를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국가방위력은 새로운 발전의 궤도를 따라 부단히 강화되고있다.



탁월한 사상기론의 저장

주체교육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 제시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민대계의 애국사업이며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국력과 전도가 좌우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육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의 백년지계를 위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주체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주체101(2012)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수 있는것처럼 학생들에게 기초교육을 주는 중등일반교육을 잘하여야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다고,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든든히 준비시킬수 없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8월 새 세계 교육혁명의 불멸의 대강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어》에서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 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메어 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이고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계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어》,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구호이라고 강조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해주시고 여러 기회에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인재 육성과 첨단과학리론, 기술 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일류급대학건설을 떠메고나갈 과학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리론 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또 한 중요회의들에서도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교육혁명의 시대에 맞게 나라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으며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원들은 당의 교육혁명방 침관찰에서 직업적혁명가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에

이 자랑찬 현실은 정력적 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공화국의 교육중시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여 주체교육발전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할데대시 교육의 총적목표를 다시금 언급하시고 새 세계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공화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면시키기 위한 교육발전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에 깊은 관심과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교육은 날로 더욱 발전하고 나라의 역군인 유능한 인재들이 숲을 이루게 될것이다. 김춘심



태권도대장! 이 류다른 명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을 가리켜 정답이 불러주시는 뜻깊은 부름이다. 태권도로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펼쳐가시는 그를 《최선생》이라고 불려주시며 민족의 재산으로, 태권도대장으로 높이 떠받들어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랑과 정이 얼마나 극진하고 뜨거운것인가를 오늘도 한장의 사진은 말해주고있다. 주체68(1979)년 5월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민족과 통일을 위해 참담계 살도목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최홍희선생의 왼쪽에 서시었다. 그러자 최홍희선생은 껌짝 놀라 자리를 옮겨 자기가 왼쪽에 서려고 하였다. 옷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오른쪽에 모시는것은 깨뜨릴수 없는 관례였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그를 다시 오른쪽에 세워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이날 최홍희선생은 자기와 같이 꼭겉도 많고 수년도 많은 인생을 굽높이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은도량과 은혜에 목이 짝 매여 고마움의 인사도 변변히 울리지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1918년 11월 함경북도 명천군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출생한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로 민족의 얼을 빛내고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고 나름대로 애를 써왔다. 그러나 그에게 걸음걸음 따른것은 모해와 박해, 좌절과 절망, 죽음을 마주하는 위협의 련속이었다. 해외에 나가면 국제태권도련맹에 가해지는 독재권력의 박해도 피할수 있고 일생의 뜻도 실현할수 있으리라던 희망도 헛된것이였다. 생전에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싸워야 할 파란과 무릅써야 할 모험도 많았고 상상키 어려운 정도로 적의 생겼으며 살벌한 이역땅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까지 처하게 되었다

고 말한적이 있다. 결국 태권도는 최홍희선생의 꿈과 리상의 대명사가 아니라 반대로 곡절과 수난많은 운명의 대명사로 되었다. 바로 이런 태권도와 최홍희선생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진정으로 태권도로 민족의 기상을 떨치도록 이끌어 주고 보살펴주시신 은인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순란치 않았던 최홍희선생의 인생사를 들어주시면서 5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최홍희선생이 그 양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때에는 대집단체조에 태권도총목을 넣어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온 세상에 시위하도록 해주셨고 몸소 최홍희선생과 대집단체조를 보여주시면서 태권도총목이 펼쳐질 때에는 그의 손을 잡고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태권도대장이라고 소개까지 해주시었다. 태권도대장이라고 불려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그 은정어린 말씀에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정통무술을 태권도로 이름짓고 세계에 널리 보급시킨 최홍희선생에 대한 소개만이 담겨져있는 것이 아니였다. 최홍희선생은 그 부름을 태권도와 더불어 조국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맨 앞장에 서라는 당부, 애국애족의 길에서 언제나 선봉에서 서서 살며 투쟁하라는 크나큰 기대로 간직하였다. 태권도로 조국통일에 기여하고 민족의 넋을 떨쳐보려던 최홍희선생의 꿈을 실현시켜주시고 민족사의 갈피에 애국지사, 이름있는 활동가로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로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는 애국의 길에서 태권도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고 그로 하여 겨레의 기억속에 뚜렷이 새겨질수 있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통일은통사애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태권도대장으로 내세워주시며